

“승가교육 진흥, 자원확보 필수”

“제도만으로는 정책집행 어렵다”...불사기금 보시 잇따라

본말사 주지 인사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중단 언론시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명일 (3월 18일 총무원회의 결과)



향적스님 2000만원 전달 일면스님도 ‘약정금’ 기탁

종단의 백년대계인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각계 스님들의 보시가 이어지고 있다. 경산 선분사 주지 향적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승가교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식에서 초대 위원으로 위촉된 향적스님은 이날 기금을 전하며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 교육 부장과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법령과 같은 제도적 기반만으로는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려면 자원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스님들이 승가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중 살림이 빠듯할 텐데도 기꺼이 정성을 내주어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승가교육 발전을 통한 종단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교육원 집행부가 승가교육원칙을 확립한 덕분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제언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에 앞서 17일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전 교육위원장)이 약정했던 1000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된 경산 선분사 주지 향적스님이 지난 18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을 예방, 승가교육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만원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전달했다. 일면스님은 기금을 전달하며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수행자 양성을 위해 작은 정성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발족식 때부터 도림법전 종정예하의 금일봉을 비롯해 종단 각계 스님들이 승가교육진흥기금을 보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로의원 천운스님이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서울 조계사 주지 세민스님,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 화계사 주지 수경스님이 각각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장 법안스님이 1000만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스님)와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스

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이 각각 500만원을 보시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5000만원을 모아 민병천 이사장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최근 펴낸 저서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의 기존 인세와 향후 받게 될 인세 전부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다수의 종단 중진 스님들이 승가교육진흥불사가 종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화두로 인식하고 있다”며 “진흥기금 보시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1배-100원 모금 법회’ 2010년 사업계획 승인

아름다운동행 정기이사회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안 보고, 2010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전개한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에 이어 △1배 100원 모금법회 △자비나눔 모금행사 △난치병 환자를 위한 3000배 모금법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 이명목 동국대 의료원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엄태규 기자

결혼이주여성에게 꿈과 희망을



현장에서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4월 초순 구미역사 내에 ‘아시아푸드전문점 축항’을 개원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한국문화가 낯선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의 문턱은 더 높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축항’은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만큼 내국인보다 더 큰 강점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것이다.

축항 개원은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스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진오스님은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이후 지존 아울렛 대표에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년째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상담과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진오스님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에게 아시아푸드전문점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이에 지존 아울렛은 구미역사 내 음식점 임대보증금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등 6000만원 상당의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해 아시아푸드전문점 개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 문제를 해결해줬다.

진오스님은 불교계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낯선 이국땅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교계가 이들을 보듬어 안아야한다는 생각에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더욱 절실하다.

“한·대만 불교교류 위해 상호 노력”

천용차오 대만 대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천용차오(陳永綽)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駐韓國臺北代表部) 대표(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한·대만 불교교류’를 주제로 환담했다.

천용차오(사진) 대사는 지난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대만 국민 가운데 70%가 불교신도”라면서 “양국 불교발전을 위해 조계종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천용차오 대사는 “총무원장 스님이 시간이 돼 대만을 방문하면 ‘한·대만 불교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초청의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계종은 한·일불교대회, 한·일불교대회 등 (동북아 불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만불교와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방문 요청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일정이 조정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과 천용차오 대사는 최근 대지진이 발생한 아이티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 대만의 불광산사와 조계종의 구호봉사단 활동을 주제로 대화를 했다.

천용차오 대사는 “아이티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만불교가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불광산사에는 출가하기 위해 온 아프리카인들도 여럿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근무할 당시 흑인들이 경전을 낭독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리 종단도 아이티에 구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구호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 불교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상호노력하면 (세계평화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제15기 국제포교사

25명 최종 합격

20일부터 6개월간 연수

한국불교의 국제화 및 외국인 포교에 나설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과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이 실시한 제15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선발시험에서 2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지난 20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9일까지 총 6개월간 연수를 거치게 되며, 연수 내용은 불교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역사, 경전의 이해, 불교용어, 불교의 이해 등의 강의와 함께 3회 사찰수련회 등으로 치러진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장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 진행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공 고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에 즈음하여

지난 제183회 임시 중앙총회에서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부동산 수익금(이하 토지 처분금)은 해당사찰과 교구본사, 그리고 총무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 법이 공포되면 기존 사찰부동산관리령에 따라 각 사찰에 적립된 토지처분금 및 보상받을 토지처분금은 모두 해당 교구본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설사암은 제외함.)

이에 총무원에서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통과 후속조치로 사찰 토지 처분 적립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교구본사에서는 다음을 참조하여 본사 및 소속 말사의 토지처분 적립금 현황을 총무원 재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제출자료
가. 본·말사 토지처분금 예치현황 (사찰별 목록 및 통장사본 첨부)
나. 토지처분금 결과보고(사용처, 전용승인 여부)
 - 제출기한: 2010. 3. 31(금) 까지
-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원 재무부(02-2011-1750)

불기2554(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